

천국의 계단이 시작되는 이곳

정미경(아플로니아)

부산성모병원 호스피스자원봉사자

조금의 가식도 허용되지 않는 진실만이 통용되는 이곳, 온갖 애환과 삶의 이야기들이 생의 끝자락에서 재조명되고, 가슴속 진심 어린 몇 마디에 평생의 응어리들이 순식간에 녹아 내리는 호스피스병동, 이곳이 천국의 계단이 아니겠는가!

마음과 생각을 비우고, 선입감을 버려 열린 가슴으로 다가설 때 우리는 한 곳을 바라보며, 나는 또 하나의 그가 되고 그의 가족이 되어 지금 이 순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며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지를 함께 나누고 계획하게 된다. 호스피스병동 입원 며칠 만에 평생을 지탱해온 자기만의 자존심과 왜곡된 자아를 무너뜨리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얼마나 부질없는 것에 얽매어 상처를 주고받으며 관계를 무너뜨리고 살아왔는지를 느낀다.

여기서는 순간순간 수많은 사연들이 피어오른다. 이 순간에도 잠깐 함께 했던 그리운 얼굴들이 스쳐 간다. 남산만 한 배를 안고 알코올 중독 남편과 장애인 아이 둘에 대한 염려로 고통과 번민에 싸여 입원했었지만 다 내려놓고 평화로운 얼굴로 떠난 여인도 있었다. 지체 장애아로 태어나서 부모에게 버려져 바람처럼 살아왔고, 암 투병을 하면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진통조절을 위해 입·퇴원을 반복하면서도 언제나 웃음을 잃지 않았던 이 요셉. 사귀던 연인의 부모가 반대하여 관계가 종료되었을 때 한동안 말을 잃었지만 삶의 마지막 순간에 소중히 간직했던 목주반지를 자원봉사자에게 건네며 함께 해줘서 행복했고 감사했다며 떠났

다. 재소자였던 그는 난폭하여 온갖 폭언과 행동으로 의료진들의 접근도 어렵게 했지만, 관장을 돕고 진심으로 다가선 나에게 떠나기 전날 얼굴을 붉히며 수줍어하며 “사~랑~해요. 감사했어요.” 하고는 선종하셨다. 성품이 온화하여 듣기를 좋아했던 어떤 할머니는 대화 도중에 자는 듯이 운명하셔서 우리를 더욱 경건하게 만들었고, 죽음의 공포로 불안에 떨며 며칠을 눈을 감지 못하고 소리치며 괴로워하던 어떤 분은 선종 기도를 바치자 조용히 운명하셨다. 그러나 지금도 안타까움을 지울 수 없는 어떤 분은 사회적 지위와 명예를 한껏 누리고 언제나 방문을 환영하면서 조금도 힘든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그의 말에는 교양과 품위가 넘쳤고 상대에 대한 배려를 표현했지만 고통의 순간들이 다가올 때 체면과 자존심을 끝까지 지키고자 모두를 거부하며 병실 바닥에서 뒹굴고, 소리치며 며칠을 괴로워하다 혼자서 우리 곁을 떠나 안타까움을 더 깊게 했었다.

호스피스 자원봉사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환우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까 하고 영성 심리상담 공부를 하였다. 상담 실습할 시간이 없어 호스피스 봉사를 찾아가는 상담으로 정하고 다가선 환우가 있었다. 그때는 산재형이라 일반 환자들과 함께 입원했던 그는 60세의 남자환자로 대장암에서 방광암으로 전이된 상태였다. 세상과 주위의 모든 것에 불만으로 가득 차 있었고 쓰는 듯한 짜증스런 말씨에 매사에 신경질적이어서 같은 병실 환자나 의료진, 자원봉사자들이 꺼리는

환자였다. 자신에 대한 질문이나 대화에 절대 응하지 않고, 벽을 쌓아가는 사람으로 주변인들을 더욱 힘들게 하였다.

처음 방문 시 주사약이 스며들지 않아 팔이 붓고, 피부가 붉어져 있었는데 아깝다며 주사를 계속 맞겠다며 간호사와 다투고 있었다. 간호사가 주사 놓는 연습하여 잘못해서 이렇게 되었다고 욕설을 퍼붓고 있었다.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불만에 대해 들어주고 다리를 주물러 주니 처음으로 고맙다는 말을 하면서 돈을 줄 테니 매일 오라고 하셨다.

두 번째 방문은 겨울인데 병실 문이 열려 있었고, 같은 병실 환자들과 다투고 있었다. 환자는 인공항문을 하고 있었는데 다른 환자들은 냄새가 난다고 방문을 열자고 했고, 본인은 춥다고 문을 닫았다. 거동이 가능했으나 귀찮아서 배변 주머니도 갈지 않고 씻지도 않았다. 어깨부터 발바닥까지 지압해주다 보니 대장암에서 방광암으로 전이되어 허벅지 밑에 통증이 많아 힘든 것이 이해되었다. 침상정리를 하는 동안 음료수를 주시며 혹시나 병이 나올까 기대하며 대세를 받았다고 말씀하셨는데 대세는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것이라 말해주니 고개를 끄덕이셨다.

3일 후 세 번째 방문 시 온 몸이 붓고 각질이 일어나 있어 따뜻한 수건으로 온몸을 닦아주고 마사지를 해 주니 미안한지 처음으로 가족에 관해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직업은 중장비업을 했었고 아내는 낮에 노름하고, 밤에는 노래방에 나간다고 했다. 딸 둘도 엄마와 똑같다면서 분노를 표출하였고, 막내아들이 고등학교 1학년인데 걱정되나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셨다.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기도는 성호만 정성껏 그어도 훌륭한 기도가 될 수 있고 자녀가 부모와 대화하듯이 편안하게 하고 싶은 말을 하면 된다고 말해 주었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하느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기에 어린이처럼 그분 무릎에 기대면 된다고 말해주고 가족을 위해서 해 줄 수 있는 것은 기도라고 말했다.

4차 방문 시 환자가 변화되어 부드러워졌다고 주변인들이 칭찬하셨다. 부분적으로 씻겨 드리고 표정변화(눈꼬리가 올라갔었는데 내려와서 부드러워짐)에 칭찬해 드렸다. 마음은 여리고 따뜻한데 감정표현이 서툴러 모두가 두려워하는 것 같았지만 나는 하나도 무섭지 않고 편안하다고 말해 주니 고마워하면서 좋아하셨고 고통과 용서에 대해 나누었다. 고통을 알게 모르게 지은 죄에 대해 보속하는 마음으로 봉헌하고, 용서는 마음의 평화를 위한 것이며, 가족에 대한 불만도 어차피 변화되지 않는다면 있는 그대로 인정하자고 하였다.

5차 방문: 죽음과 부활, 천국에 대해 나눔. 죽음은 새로운 삶의 시작이며 부활은 내가 세상에서 살았던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루어질 것이며, 천국은 지상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상상하면 될 것 같다는 말을 해주었다. 다음날 임종하셨고, 병원 영안실에 빈소가 마련되었으며 아들과 함께 연도를 드렸다. 갑작스러운 임종과 가족을 만날 기회가 없어 직접 화해의 시간을 마련하지 못했음이 안타까웠지만, 자신을 열고 세상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버리고,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해주는 따뜻한데 감사하며 영적인 희망을 품고 떠날 수 있었음에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나는 호스피스 병동에서 삶을 배우고, 관계를 배우고, 사랑을 배우며 평화와 행복에 이르는 길을 배우면서 언제 올지 모르는 마지막을 준비하며 살아간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환자와 가족들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에 감사하며 남은 삶을 시작하는 새로운 부활을 맞이하고 싶다.